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헨리 제임스의 『메이지가 깨달은 것』 에
나타난 경험과 인식의 확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玄 才 娟

2012年 8月

헨리 제임스의 『메이지가 깨달은 것』 에 나타난 경험과 인식의 확장

指導教授 卞 鐘 民

玄 才 娟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2年 6月

玄才娟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2年 8月

<국문 초록>

헨리 제임스의 『메이지가 깨달은 것』에 나타난
경험과 인식의 확장

玄才娟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卞鐘民

『메이지가 깨달은 것』에서 헨리 제임스는 이혼한 부모 사이를 옮겨 다니며 어린 시절의 순수성을 간직하던 메이지가 경험과 교육을 통해 지식을 접하게 됨으로써 인식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성장과정을 통해 19세기 영국사회의 문란하고 부도덕한 성인문화를 비판한다. 이 논문에서는 주인공 메이지가 어린 시절에서 사춘기에 이르기까지 감각적 경험과 지식의 습득을 통해 어떻게 인식능력을 키우며 성인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메이지의 성장과정은 세 단계, 즉 감각적 경험의 단계, 지식의 활용 단계, 감각과 지식의 결합단계로 나뉜다. 메이지의 성장과정은 메이지의 시각에만 의존하여 서술되기 때문에 성인사회에 대한 독자의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메이지의 깨달음과 독자의 지식 사이에는 간극이 생기게 된다. 작가는 메이지의 순수함(무지함)과 독자의 지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아이러니로 메이지와 성인사회의 대립을 극대화하고, 이 대립을 강조하기 위해 대칭과 같은 희극적 기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 둘의 대립은 성인사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효과를 가져 온다. 제임스는 순수한 눈으로 부패한 영국사회를 바라보는 메이지를 통해 소녀를 둘러싼 성인들을 공격하며 그녀가 비록 좋지 못한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하지만 마지막에 옳은 선택을 하는 장면을 통해 그녀의 바람직한 인식의 성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제임스는 메이지의 경험과 지식의 습득, 그녀를 괴롭힌 성인사회와 이별하는 일련의 사건을 메이지의 성장과정으로 본다. 메이지는 자신을 조롱하는 성인사회를 끊임없이 이해하려 노력한다. 이러한 면에서 메이지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성인들에 비해 도덕

※ 본 논문은 201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임.

적으로 순수하며, 메시지를 도구로 여기는 성인들이 강조하는 정형화된 지식의 성장이 아닌 작가가 의도한 진정한 의미의 의식의 확장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

목 차

I. 서 론	1
II. 경험의 확장	5
1. 감각적 경험의 단계	5
2. 지식의 활용 단계	11
3. 감각과 지식의 결합 단계	17
III. 인식의 확장	29
1. 도덕적 판단 능력	29
2. 성의식의 확장 가능성	34
IV. 결 론	39
Bibliography	42
Abstract	45

I. 서론

헨리 제임스(Henry James: 1843-1916)의 작가 활동 중 중년기(middle year)에 해당하는 실험기를 거치는 동안 제임스는 여러 편의 소설을 쓰게 된다. 이 중 1889-1895년은 극적실험기간(dramatic years)으로 일컬어질 만큼 작가는 소설이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소설의 본질과 그에 따른 기법의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는 실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스스로는 물론 수많은 독자로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던 그의 첫 희곡, 『가이 돔빌』(*Guy Domeville*, 1895)의 실패는 작가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이 희곡을 중심으로 이전의 소설작품들이 새로운 주제를 실험한 것이었다면, 이후의 작품인 『건너편 집』(*The Other House*, 1896), 『포인튼의 몰락』(*The Spoils of Poynton*, 1896), 『메이지가 깨달은 것』(*What Maisie Knew*, 1897), 『사춘기』(*The Awkward Age*, 1899), 『신성한 샘물』(*The Sacred Fount*, 1901)에서 제임스는 그 새로운 주제에 알맞은 체계와 형식, 기술에 대한 실험을 했다.¹⁾ 이 다섯 작품은 소설에 극적인 요소를 접목하는 형식을 보인다. 제임스는 『메이지가 깨달은 것』에서 인물과 장의 대칭, 장면기법, 인물간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효과 등을 통해 소설에 연극의 기법을 응용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메이지가 깨달은 것』(*What Maisie Knew*, 1897)은 실험기가 끝나는 시점에 쓰인 것으로 작가로서의 창작정신과 실험적 기법이 무르익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메이지가 깨달은 것』만큼 제임스의 작품 중 비평가들의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는 소설도 드물 것이다. 애매모호한 표현들과 중의적인 의미를 지닌 인물들의 행위로 인해 독자들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안감마저 느끼게 된다. 비평가들은 이 작품이 작가의 또 다른 자기과시용 소설로 불필요한 한도를 설정하여 자신의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²⁾

1) Sergio Perosa, *Henry James and the Experimental Novel* (Charlottesville: UP of Virginia, 1978), p. 5.

2) S. Gorley Putt, *Henry James: A Reader's Guide* (New York: Cornell UP, 1966), p. 248.

제임스는 극작가로서 고배를 마신 후 소녀를 주인공으로 쓴 소설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자 했다. 어린 소녀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달래려는 노력을 한 것이다. 이는 여성의 심리에 대한 이해가 탁월했던 제임스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헨리 제임스만큼 여성의 내면에 대한 이해와 여성의 외모나 성격이 좋고, 나쁨을 떠나 보편적으로 여섯이 지닌 매력을 제지하는 능력을 가진 작가는 없다. 영어로 쓰인 문학 작품에서 제임스의 여성인물과 다른 이들의 여성인물을 비교해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이 전혀 여성에 대해 쓴 것이 아니라고 느낄 것이다.³⁾

제임스 자신 역시 『메이지가 깨달은 것』의 서문을 통해 소년이 아닌 소녀를 주인공으로 설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나는 나의 얇은 의식을 실은 돛단배(주인공)가 그럴듯하지만 버릇없는 어린 소년이 될 수 없음을 알아차렸다. 왜냐하면 소년은 의심할 여지없이 두각을 나타내지 않으며 소녀의 거대하고 무한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⁴⁾

『메이지가 깨달은 것』은 타락한 영국 성인사회에서 한 소녀의 순수함과 도덕성의 문제,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빌 패런지(Beale Farange)와 그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정부인 커튼 부인(Mrs. Cuddon)의 일화를 비롯해 미국 문학에서 나타나는 다인종, 다문화, 인지 심리학 등에 대해 담고 있다. 나아가 최근 들어서는 메이지(Maisie)와 그녀의 새아버지인 클라우드 경(Sir Claude)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소설을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연관 짓기도 한다.⁵⁾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메이지가 깨달은 것』이 혼란스러운 성인사회에

3) Edward Wagenknecht, *Eve and Henry James: Portraits of Women and Girls in His Fiction*. (Oklahoma: U. of Oklahoma P., 1977), p. xii.

4) Henry James, *What Maisie Knew* (London: Vintage Random House, 2008), p. 4. 이하 소설 본문의 인용은 이 텍스트에 따르며 인용문 말미의 괄호에 페이지만 명시키로 함.

5) Marcus Klein, *Terribly at the Mercy of His Mind: Henry James in the 1890s* (Seoul: Seoul National UP, 2010), p. 104.

홀로 남겨진 메이지가 성장함에 따라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며 청소년기를 맞는 성장소설이라는 것이다. 제임스는 이 소설의 서문에서 언급했듯이 이혼한 부부의 자녀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정 기간 부모의 집을 번갈아가며 이 부부가 각각 재혼함에 따라 서로 자녀를 맡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일화를 듣고 작품 구상에 들어갔다. 초기 의도는 결혼과 이혼을 서슴없이 하는 영국사회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 힘없는 소녀를 희생양으로 설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작가는 자연스럽게 소녀의 성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이 소녀를 주인공으로 하여 부도덕한 성인사회에서 여러 경험을 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소녀의 모습을 그리게 되었다.

이 소설에서는 어린 메이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므로 서술 또한 메이지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점이 흥미롭다. 독자는 메이지가 성장함에 따라 사회를 보는 시야가 넓어지므로 소녀를 통해 얻는 정보 또한 많아지게 된다. 처음 독자 앞에 등장하는 메이지는 성인사회를 접하는 경험이 부족하여 모든 것을 시각적인 모습이나 감각적인 느낌 그대로 받아드린다. 소녀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축적한 감각적 정보를 바탕으로 타락한 성인사회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적 경험이 부족한 메이지의 언행은 성인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고, 그러자 메이지는 침묵으로 성인들을 관찰하는 모습을 보인다. 침묵으로 얻은 정보가 경험으로 쌓이자 메이지는 이 경험을 상황에 맞게 정리하는 능력을 갖는 단계에 이른다.

경험을 활용하는 단계에 접어든 메이지는 가정교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동화책을 통해 지식을 확장해 나간다. 그리고 그녀는 이 지식을 자신과 주위의 성인들에게 이용하며 즉흥적인 감정표현을 자제하고 성숙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 나아가 메이지는 자신의 감각적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신의 보호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성인들을 평가하며 비판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메이지에게 도덕성이란 교과서적인 해답을 떠나 부패한 성인사회에서 자신이 도덕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것이다. 그녀는 워스 부인을 보호자로 선택하면서 자신의 도덕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지만 성의식에 대한 인식은 끝내 하지 못한다. 그러나 영국으로 돌아가며

청소년이 된 메이지는 성인사회로 진입하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성의식에 눈을 뜰 가능성을 내비친다.

본 논문에서는 메이지의 깨달음과 성장을 감각적 경험의 단계, 지식의 활용 단계, 감각과 지식의 결합 단계로 나누어 분석해봄으로써 부패한 성인사회를 경험하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성숙의 단계에 이르는 메이지의 경험과 인식의 확장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경험의 확장

1. 감각적 경험의 단계

메이지(Maisie)는 부모가 이혼함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을 “라켓 사이를 오가는 작은 셔틀콕”처럼 반년씩 옮겨 다니면서 생활한다. 메이지의 나이는 이제 갓 여섯 살이었다. 1839년 개정된 영국법에 의하면 부모가 이혼할 경우 아동의 양육권은 아버지가 갖되, 어머니와의 접촉이 허용되며, 아동이 7세 이하일 경우 어머니가 7세까지 아동의 양육을 책임질 수 있었다.⁶⁾ 그러나 메이지의 경우는 7세 미만이지만 아버지인 빌이 양육을 책임지려 하지도 않았고 어머니인 아이다 역시 돌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결국 법정은 “솔로몬의 판결”이라도 되듯 이혼한 부부가 서로 6개월씩 교차하며 메이지를 양육하도록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메이지는 이혼해서 각자 재혼까지 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을 반년씩 교차로 오가며 부모 간의 분노와 증오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된다.

독자는 여섯 살 소녀의 시각을 통해 모든 것을 전달받게 된다. 성인사회를 이해하고 비판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어린 메이지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람이나 사회에 대한 그녀의 인식과 이해는 감각기관을 통해 느껴지는 그대로 서술되며 직접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성향이 있다.⁷⁾ 예컨대 빌의 집에서 식모 모들(Moddle)이 메이지를 위해 크고 쉬운 단어로 종이에 써 놓았던 “엄마의 다정함”이나 “수란이 들어간 따뜻한 차 한 잔”을 통해 메이지는 아이다의 집에서 할 일들을 상상한다. 또한 마차에서 만난 엄마 아이다를 “키스, 리본, 눈, 팔, 이상한 소리와 달콤한 향기”(21)처럼 과편적인 정보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어머니와 재혼할 클라우드 경(Sir Claude)의 사진을 처음 접한 메이지는 “반듯하고 매끄러운 얼굴에 균형이 잡힌 체형, 선한 눈매, 쾌활한 인상, 걸음으로 흐르는 반짝거림과 세련되고 똑똑

6) Jeff Westover, "Handing Over Power in James's *What Maisie Knew*," *Style*, (June, 22, 1994), p. 1.
7) Kathryn Miles, "*What Maisie Knew* and the Governess Muddles: Cognitive Development in James's Post-dramatic Fiction," *Colby Quarterly* 36.3(2000), p. 195.

한”(48) 외모라고 이해하며 미래의 계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그러나 이처럼 겉모습만으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판단을 하는 메이지의 지식은 그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메이지가 받아드리는 감각적인 정보를 통해 소녀가 성인들의 상황을 연결하는 것은 아직 무리이기 때문이다.⁸⁾

성인사회에 대한 인식이 백지상태나 다름없는 메이지의 순수성은 마차 안에서 나누는 어머니와의 대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엄마 아이다가 “나의 소중한 천사야 너의 야수 같은 아빠가 너의 사랑스러운 엄마에게 전해달라는 말이 있었니?” 라고 묻자 메이지는 망설임도 없이 “아빠가 엄마는 진저리나는 고약한 돼지라고 전해달래요!”(21)라고 곧바로 답한다. 이처럼 메이지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사전에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녀는 보고 느끼는 것을 그대로 전달할 뿐이다. 그 결과 메이지는 자신이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엮이며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하지만, 그녀의 질문과 이야기는 성인들로부터 비웃음만을 사게 된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메이지는 스스로 위축되어 말문을 닫아버리는 성향을 지닌다. 다시 말해 세상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부족한 주인공은 자신의 개입으로 모든 상황이 나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성인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얻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입술을 닫는다. 메이지의 침묵이 반복되자 아이다는 자신의 딸을 “작은 얼간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전 남편 빌에 대한 증오와 더 이상 메이지를 키울 수 없는 탓을 자신의 어린 딸에게 돌린다.

메이지는 자신들의 욕구를 성취하지 못한 성인들로부터 “곧쫓덩어리”이자 “얼간이”라는 욕을 듣게 되며, 이 언어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침묵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여 세상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익히고자 한다.⁹⁾ 메이지는 스스로의 말문을 닫아버린 대신 성인들을 관찰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 것이다. 이런 능력은 자신의 아버지와 재혼한 가정교사 오버무어(Miss Overmore) 양에 대한 관찰에서 잘 드러난다.

그녀는 자신이 아빠보다 오버무어 양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없었

8) Miles, p. 196.

9) Özlem Özen, "Different Realms of Perception in *What Maisie Knew*," (Konya: Selçuk Üniversitesi Sosyal Bilimler Enstitüsü Dergisi, 2011), p. 204.

고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빠 또한 자신 못지않게 오버뮤어 양을 좋아한다고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아빠가 특별히 그녀에게 이야기해준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메이지는 이 사실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28)

메이지의 관찰능력과 관련하여 애트리지(John Attridge)는 라일(Gilber Ryle)의 *Knowing How and Knowing That* (1971)을 차용하여 메이지의 침묵이 ‘단순한 지식’(knowledge-that)의 결핍이 아닌 ‘인식의 방법’(knowledge-how)을 노련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¹⁰⁾ 단순한 지식은 정형화된 것으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천편일률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인식의 방법은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갈래 길을 시도하는 능력으로 애트리지는 ‘체스’를 두는 것에 비유했다. 말하자면 메이지는 빌과 오버뮤어 양을 관찰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시험한 것이다.

메이지는 오버뮤어양을 관찰한다. 오버뮤어 양은 아름답고 품위를 지키는 여성으로 우아하게 포크를 드는 모습을 본 메이지는 아이다보다 미모가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소녀는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오버뮤어 양을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자신을 살갑게 대하는 가정교사를 아이다보다 더 좋아하게 된다. 이후 오버뮤어 양은 빌과의 결혼으로 호칭이 빌 부인으로 바뀌면서 “그[빌]는 나의 남편이고 나는 그의 어린 아내야”(50)라며 자신이 메이지의 보호자임을 주장한다. 그리고 메이지를 소유하고 교육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줄곧 빌 부인을 관찰하는 메이지는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가정교사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빌 부인은 메이지를 이용하여 빌을 만나고 클라우드 경과의 부정적인 만남을 합리화 시킨다. 빌 부부가 이혼하기 전 아이다가 고용한 가정교사 오버뮤어 양은 메이지가 빌의 집으로 가게 되자 메이지와 함께 빌의 집으로 갈 수 없다는 아이다와의 약속을 어기고 3일 만에 자진하여 메이지를 따라나선다. 그리고 오버뮤어 양은 빌에게 메이지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노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한다. 결국 빌의 집에서 가정교사로 생활할 수 있게 된 오버뮤어

10) John Attridge, "The Lesson of the Master: Learning and Cognition in *What Maisie Knew*", *Sydney Studies in English* 37, (2011), p. 36.

양은 그 용기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메이지 또한 그녀에게 무한한 믿음을 주었으며 메이지에 대한 오버무어 양의 사랑은 빌의 호감을 사게 된다. 오버무어 양과 같이 살게 된 메이지는 빌이 그녀의 가정교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보고 느낄 수 있을 뿐 오버무어 양에 대한 빌의 그 이상의 관심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 채지 못한다. 예컨대 마차 안에서 그들 간에 나누는 애정의 농도를 메이지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

메이지 제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빠가 선생님을 좋아했나요?
 빌 이런 망아지야, 내가 없으면 내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 무슨 일을 하겠니?
 오버무어 양 애야 만약에 아빠가 이런 지독한 장난을 더 한다면 너
 를 데리고 떠나 어딘가에서 우리끼리 착하고 조용한 숙
 녀들로 지내자구나. (35)

이 장면에서 소녀는 아버지의 딸이 왜 지독한 장난인지 이해할 수 없다. 메이지와 독자의 지식의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순수하기 이를 데 없어 성인들의 언어가 지닌 행간의 의미를 읽지 못하는 메이지에 대해 웃음과 안쓰러움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메이지는 빌과 결혼한 오버무어 양(훗날 빌 부인)과 계부인 클라우드 경(Sir Claude)의 관계를 자신이 가깝게 한 사실에 기뻐한다. 이미 클라우드 경과 오버무어 양은 메이지가 보고 느끼는 것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지만 메이지는 그런 남녀관계를 인식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저 그들 둘 사이가 좋아지도록 자신이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할 뿐이다. 작가는 이 소설의 서문에서 이러한 메이지의 역할에 대해 “기적을 행하는 중개인이 새로운 유대관계를 형성시켰으며 이득을 끌어냈다”(3)고 평가한다. 그러나 메이지의 지식은 사실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이기심과 부정직과 간통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¹¹⁾ 즉 메이지는 아직 부정직, 간통을 악과 연결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독자는 서술에 나타난 메이지의 생각을 통해 이야기를 따라간다. 독자는 메이지가 보고 들은 정보를 서술에서 얻

11) 박용수, 「『메이지가 안 것』의 아이러니와 기법」, 『인문학개론』 18.1 (1991), p. 61.

는다. 메이지가 보고 들은 성인들의 대화와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중 일부에 불과하나 독자들은 그녀의 제한된 서술에서 연민과 유머를 자아내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¹²⁾ 메이지는 관찰을 통해 표면적으로 보여 지지 않는 감정적 측면을 인지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만 자신의 제한적 경험을 바탕으로 단편적인 판단 밖에 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마일즈는 이러한 메이지의 능력에 대해 “백지 상태에서 축적되는 인식과 경험으로 틈새와 공간을 매워간다”¹³⁾고 주장한다. 이는 메이지가 백지상태에서 경험으로 축적되는 발견과정에 이어서 경험을 이용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지식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게 됨으로써 과거의 경험과 현재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샤인(Muriel G. Shine) 역시 메이지는 경험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그녀에게 교육이 되었다고 서술한다.¹⁴⁾

실제 작품에서 메이지가 경험을 통해 인식이 확대되는 과정이 곳곳에 나타난다.

처음으로 메이지는 느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느꼈음을 알았다. (19)

그녀의 마른 다리를 놀리던 신사들이 말하던 것처럼 그녀가 예리해지면서 그녀는 생각 속에서 의미를 연결 지을 수 있는 이미지와 메아리를 찾았다. 이 이미지와 메아리는 어린 아이 같은 황혼, 어두운 옷장, 높은 서랍, 그녀의 나이에 가지고 놀 수 없는 게임과 같이 멀리 있는 것이었다. (20)

지금껏 이해하지 못한 성인사회는 메이지가 가지고 놀지 못하는 ‘게임’에 불과했다. 그러나 메이지의 감각적 지식이 어느 정도 축적되었을 무렵 그녀는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성인들의 행동과 대화에서 어렴풋이 그 의미를 연결할 수 있는 자신의 지식을 발견하게 된다.

아직 지식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메이지의 이해정도는 파편적이고

12) Roger Gard, *Henry James: The Critical Heritage* (London: Routledge & K. Paul, 1968), p. 269.

13) Miles, p. 196.

14) Muriel G. Shine, *The Fictional Children of Henry James*.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9), p. 110.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그러나 그녀는 새로 경험한 인상을 카테고리 별로 분류할 수 있고, 자신의 시각정보와 기억을 통해 미래에 대한 상상과 현재 상황과 과거의 경험을 연결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메이지는 박람회장에서 빌과 그의 정부이자 미국 백작부인인 커튼 부인(Mrs. Cuddon)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일전에 아이다와 그녀의 세 번째 애인인 선장을 켄싱턴 가든에서 목격한 경험으로 미루어 커튼 부인을 “그래 아빠의 선장은 백작부인이야”(157)라고 과거 경험을 떠올리며 빌과 커튼 부인의 관계를 생각한다. 또한 빌과 가정교사 오버무어 양이 늘 함께 있듯 메이지는 아이다의 집에 가면 남자 선생님이 자신을 가르칠 것이라고 상상하며 연관 짓는 모습을 보인다. 상상력은 메이지가 보는 것 이상의 그 무언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를 두고 김동수는 상상력이 성에 무지한 메이지로 하여금 성인들의 사랑에 대한 질문과 판단을 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한다.¹⁵⁾ 이제 메이지는 자신만의 생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어느 정도 어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상할 수 있다.

메이지가 상상력의 도움으로 한층 더 성숙한 인식의 과정에 진입하게 되었어도 성인사회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며 성인들의 불규칙적인 행동을 읽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그녀는 인생을 “길고 긴 복도에 나열되어 있는 노크를 하고 열어볼 수 없는 닫힌 문”(36)으로 생각한다. 또한 자신의 무지함으로 성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지식이라는 사탕가게의 유리창에 꼭 붙어”(114) 배움을 갈망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토록 아직은 순진무구하여 어른들의 복잡한 언어 및 행동구조를 이해할 수 없는 메이지는 그저 자신의 눈과 귀를 통해 보고 느끼는 그대로 세상을 이해하고자 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천진난만하기도하고 바보스럽기도 하지만 메이지로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사고능력의 전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감각적 경험이 쌓이면서 메이지가 상상을 통해 성인사회를 예상하려는 노력을 보이거나 아직 어른들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메이지는 차츰 감각적 경험에 독서를 통한 지식의 양이 보태지며 사물을 보는 시각 또한 변화하고 발전하게 된다.

15) 김동수, 「The Act of Knowing in Henry James's Novels of the Nineties」,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p. 118.

2. 지식 활용의 단계

메이지는 두 번째 가정교사인 워스 부인으로부터 처음으로 문학을 접하게 된다. 워스 부인은 아이다와 정반대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며 불품없는 외모의 소유자이다. 시각적 이미지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메이지는 그녀와 ‘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메이지는 워스 부인이 지닌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인해 열정과 괴로움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이것은 “이상하고 혼란스럽게도 오버무어 양과 아이다에게서 느낄 수 없는 기분이었다”(30). 워스 부인에게서 모성애와 안전함을 느낀 메이지는 워스 부인이 절대 자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워스 부인은 마지막에 메이지에게 선택을 받는 가장 도덕적인 인물인 동시에 자신의 죽은 딸 클라라 마틸다(Clara Matilda)의 대체물로 메이지를 보기도 한다. 메이지에게 클라라 마틸다를 “네 죽은 언니야”(30)로 소개하며 메이지에게 딸의 감정을 느낀다. 그러나 워스 부인도 결국 오버무어 양과 마찬가지로 메이지를 자신의 생존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바겐크넷(Edward Wagenknecht)은 워스 부인에게 메이지는 헌신의 목표임과 동시에 ‘식권’이라는 것을 잇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¹⁶⁾

작가는 메이지가 워스 부인과 오버무어 양으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자세히 밝히지 않는다. 다만 그녀가 공부방에서 워스 부인의 이야기와 오버무어 양이 유럽대륙에 있었을 적 일들을 들으며 “절대 잊혀 지지 않는 기억과 상세한 정보들이 연결되어 메이지를 즐겁게 했다”(32)고 간단하게 언급할 뿐이다. 이제 메이지는 자신의 경험과 가정교사로부터 배우는 지식을 이용하여 “대개 잡담으로만 이루어진 사회 ... 모든 사람들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로 모든 이를 확신시키며, 충격적이지 않으면 아무 사람도 즐겁지 않은 사회”(16)를 이해하려고 한다.

일상생활에서도 메이지는 가정교사와 클라우드 경으로부터 현실에서 자신들을 동화 속의 주인공으로 여기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다.

‘여기는 아텐의 숲이야,’ 클라우드 경은 기분 좋게 둘러보았다. ‘그리고

16) Wagenknecht, p. 119.

나는 추방당한 공작이지, 그리고 너는 그 소박한 젊은 여성을 뭐라고 불렀더라? 그리고,’ 그는 계속 이야기해 나갔다. ‘또 다른 여자가 있어, 그녀의 이름이 로잘린드였나? 그리고 그녀 주위를 맴도는 남자가 있지.’ (115)

이처럼 클라우드 경은 종종 자신을 이야기의 주인공인 추방당한 공작으로 상상하며 메이지와 마치 이야기의 한 장면을 이야기하듯 자신들의 산책을 묘사한다.

자신의 감각적 경험에만 의존하던 메이지가 아이다의 외모를 세분화하여 기억을 했다면, 문학을 접한 후의 메이지는 아이다의 아름다운 입술 색과 자신을 뵈히 쳐다보는 눈을 보며 그녀를 이야기책에서 읽은 사랑스러운 주인공에 빗대기도 한다.

또한 앞서 클라우드 경이 메이지와의 산책을 이야기로 묘사하듯 메이지도 자신의 상황과 주위의 어른들을 책의 주인공과 결합시킨다. 대박람회에서 빌을 만나 커든 부인의 집으로 향하면서 메이지는 워스 부인과 자신이 “비록 프렌치 엘리제의 로맨스 소설의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수천 개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144)고 생각하며 커든 부인의 집으로 향하는 설렘과 환상을 낸다. 또한 커든 부인의 집을 들어가는 장면에서 자신이 읽었던 『아라비안 나이트』(*The Arabian Nights*)를 생각하는 메이지에게서 이 특징을 볼 수 있다.

지금부터 경이로운 느낌이 모든 것에 있었다. 특히 ‘열려라 참깨’라고 하는 순간, 택시가 떠나고, 달그락 거리는 빈 공간이 소원해진 양부모로 채워졌다. 이 빈 공간은 선명함으로 눈이 멀 정도의 눈부신 빛이 아빠가 빠르게 벽에 붙어있는 동 문고리를 잡은 순간 튀어나왔고, 폭신한 층계 위에서 그녀가 인생에서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아름다움으로 내리쬐고 있었다. (144)

메이지는 커든 부인의 문 앞에서 『아라비안 나이트』의 한 장면을 생각하며 현실과 이야기를 혼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클라우드 경과의 산책에서 자신을 동화속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메이지는 나아가 여러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고 이제 현실과 동화책의 이야기를 섞어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메이지는 자신의 감각적 경험과 가정교사의 교육과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켄싱

턴 가든에서 선장(the Captain)과 이야기하는 장면에서는 성인의 성숙함을 비치기도 한다. 브뤼셀에서 열리는 당구대회에 있어야 할 아이다가 켄싱턴 가든에서 처음 보는 선장과 걷는 모습에 혼란스러워하지만, 선장과 대화의 통을 통해 그녀는 그의 진실함을 느낀다. “그녀[아이다]는 천사야, ..., 그녀는 매우 재미있는 사람이다. 나는 많은 것을 그렇게 잘 하는 사람을 본적이 없어”(124)와 같은 선장의 자상한 말과 훗날의 외모는 그에 대한 메이지의 낯선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하게 만든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선장이야말로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이다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한다. 메이지의 눈에 선장은 기사도 정신이 충만한 영웅처럼 보인다. “정말 그녀[아이다]를 사랑하나요?”(125)라고 물으면서 흘리는 메이지의 눈물은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메이지의 방대한 지혜와 직관적인 능력”¹⁷⁾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나아가 메이지는 아이다와 빌과 이별하는 장면에서 이미 자신의 부모를 도덕적인 측면에서 앞서기 시작한다. 『나사의 회전』에서 마일즈(Miles)와 플로라(Flora)의 실질적인 보호자인 삼촌이 그렇듯이 빌은 자신의 딸에게 매우 무관심하다. 빌은 자신의 친구들이 메이지의 깡마른 다리를 꼬집고 무릎에 앉혀 담배연기를 뿜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아주 가끔 오는 아이다의 편지를 메이지에게서 빼앗아 불 지핀 난로에 던져버리는 장난으로 딸을 놀린다.

박람회장에서 우연히 메이지를 만난 빌은 커든 부인의 집으로 딸을 데리고 오고 빌은 메이지에게 같이 미국에 갈 것을 권유한다. 대화중에 빌은 아이다와 신경전을 벌이듯 소녀에게 아이다의 근황을 물어본다. 메이지는 빌이 친부모보다 상대적으로 자신을 더 챙겨주는 클라우드 경과 빌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까 봐 그들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 빌에게 아이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며 자신에게 아버지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나아가 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아빠가 하자는 모든 것을 따르겠어요”(151)라며 기분을 맞춰준다. 이것은 이전에 아이다에게 빌의 말을 가감 없이 전하던 메이지와는 다른 모습이다.

빌은 메이지의 대답에 대해 동행하기 싫다는 의미라는 것을 안다며 메이지를

17) 노은미, 「헨리 제임스의 작품에 나타나는 의식의 문제와 작가의 이중성」, 한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p. 105.

나무라고 여기에서도 “너의 엄마는 너보다 부엌데기를 더 챙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의 법적 보호자로서 너는 나에게서 뜯어가고 싶은 만큼 챙겨갈 수 있어. 지금이 바로 기회야. ... 너희 엄마는 너를 싫어해. 너를 증오했어”(152) 라고 말하며 아이다를 비방한다. 이에 메이지는 다시는 빌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직감한다. 사실 빌이 그녀를 집으로 데려온 이유는 그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메이지는 빌을 떠나보내고자 하는 자신의 진심을 겉으로 드러내야 할지 아니면 빌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척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러나 메이지는 빌의 말과 행동에서 그가 진심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그와의 관계를 정리할 시기가 되었음을 알게 된다.

‘이 바보야, 내가 야만적이지 않고, 흠잡을 데 없이 숭고할 수 있게 도와줘. 우리 중 한 명이 부도덕해야 한다면 그건 너의 몫이야. 이 아빠를 거절해줘. 내가 이렇게 빌게. 나는 너에게 험하게 굴 수 없어. 나는 그럴만한 위인이 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버려. 나는 너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하고 관대해야 할 의무가 있어.’ (153)

마침 등장한 커튼 부인도 메이지에게 다정하게 함께 스푸에 가자고 하지만 그녀 또한 빌과 마찬가지로 은연중에 소녀가 자신들을 거절하기를 바란다. 커튼 부인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택시에 오르는 메이지는 빌이 미국에 가지 않을 것이며 대신 커튼 부인과 스푸에 갈 것임을 어렵פות이 예상한다.

아버지 빌은 작품에서 잠깐 언급되는 수준으로 메이지의 주위에는 자주 나타나지 않는 인물이다. ‘아버지 부재’(absent father)는 제임스의 다른 작품에서도 다뤄왔던 문제이기도 하다.¹⁸⁾ 부모는 자식을 품어야 하지만 상류사회에서는 편 부모나 대리모가 돌보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러한 경험은 비극적일 수 있지만 메이지처럼 교육적이거나 『나사의 회전』의 마일즈처럼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한다고 캐넌(Kelly Cannon)은 주장한다.¹⁹⁾ 빌과 아이다는 메이지의 부모임에도

18) 제임스의 작품 중 ‘아버지 부재’의 주제는 『여인의 초상』(*The Portrait of a Lady*)의 다니엘 터치트(Daniel Touchett), 『카사마시마의 공주』(*The Princess of Cassamassima*)에서 히아신스 로빈슨(Hyacinth Robinson)의 아버지, 『생도』(*The Pupil*)의 모린 씨(Mr. Moreen), 『나사의 회전』(*The Turn of the Screw*)의 삼촌, 『대사들』(*The Ambassadors*)의 중년의 남성 등을 통해 다루어지고 있다.

19) Kelly Cannon, *Henry James and Masculinity: The Man at the Margin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4), p. 135.

불구하고 작품에서 비중이 적다. 그들은 워스 부인, 빌 부인, 클라우드 경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편이다. 빌과 아이다가 타인의 시각을 통해 등장하는 것은 메이지에 대해 무관심하고 그녀의 세계와 관련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샤인은 아이다와 빌의 직접적인 등장이 적은 것에 대해 캐넌보다 확장된 개념의 ‘부모 부재’(absentee parents)라는 용어를 사용했다.²⁰⁾

빌이 무미건조하고 아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한 인물이라면, 반대로 아이다는 딸에 대한 증오와 짜증으로 가득하다. 아이다는 많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작품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영향력이 크다. 항상 짜증난 모습으로 등장하는 아이다는 메이지가 이미 알고 있는 자신의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말 것을 계속적으로 주문한다. 그녀는 상대적 약자인 딸이 지식과 경험이 확장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 메이지에게 억압적인 태도와는 반대로 소녀에게 판단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아이다의 일관되지 않은 반응은 메이지에게 혼돈을 준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좇아 메이지의 생각을 지배하려는 아이다의 속셈을 보여준다. 프랑스로 떠나기 전 아이다는 빌 부인의 집 하녀에게 물어 메이지와 클라우드 경이 포크스톤(Folkestone)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딸과 남편을 만나러 포크스톤에 도착한다. 멀리서 관광객들이 보면 다정한 식구로 보이지만 메이지는 아이다의 등장으로 자신과 계부의 프랑스행이 발각될까 걱정한다.

아이다는 메이지에게 자신과 함께 남아프리카에서 요양을 하며 살자고 제안을 하러 포크스톤에 내려온다. 이것은 미국행을 함께 할 것을 묻는 빌의 행동과 대칭을 이룬다. 아이다는 메이지에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메이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었으며, 이곳에 오기까지 많은 것을 포기했고, 따라서 자신은 딸에게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빌이 “너 [메이지]가 죽길 바라. 내 말은 그는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어”(178)라며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없는 그의 말을 전하면서 소녀의 곁에 있는 클라우드 경을 무시한다. 나아가 자신의 딸도 무시한다. 아이다는 자신 대 메이지의 지지자들(빌, 클라우드 경)간의 경쟁구도를 만들어 자신을 자비롭게 보이게 하려 하며, 발언의 기회를 주지 않던 메이지에게까지 소녀의 생각을 들으려 한다.²¹⁾ 그러나 메

20) Shine, p. 116.

이지가 조금이라도 아이다가 강요한 무지와 순박함 이상의 생각을 하거나 그녀가 원하지 않는 물음을 건넬 기미를 보이면 아이다는 키스와 포옹, 손을 꼭 잡으며 메이지의 발언을 묵살시킨다.

‘조금만 늦었으면 못 볼 뻔 했어요.’ 메이지의 입은 차마 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말을 뱉었다. ‘우리는 프랑스에 가요.’
아이다는 감명을 받아 메이지의 이마에 키스를 했다. (170)

‘아파요, 엄마? 정말 아파요?’ ...
그녀는 오직 메이지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묻고 말했다. ‘매우 아프단다, 아가. 나는 꼭 남아프리카로 가야만해.’ (173)

웨스트오버는 타인에게 손을 얹는 행위에 대해 이는 성인들의 권력을 나타낸다고 해석한다.²²⁾ 그는 아이다의 포옹을 위협과 이기주의의 전형으로 보고 있다. 아이다에게 수동적이기만 했던 메이지는 선장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를 “런던에서 제일 비열한 인간”이라고 부르는 어머니에 대해 처음으로 분노를 표출한다. 그 순간 메이지는 아이다로부터 광기, 황량함,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를 보게 된다. 이에 관련하여 박용수는 아이다의 방종의 말로가 정신착란과 암흑과 죽음이라고 메이지가 직감한다고 여기며 그녀의 분노는 뜻밖의 연민으로 바뀐다고 서술한다.²³⁾

메이지는 자신과 선장을 일관성 있게 대하지 않는 아이다의 태도, 빌을 비방하고 자신을 “끔찍할 정도로 침울하고 질 낮은” 아이라고 부르는 어머니와 조용히 헤어진다. 이것은 메이지가 아이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다. 포크스톤 장면에서 작가는 독자들에게 “오 나는 단호히 그녀[메이지]가 말한 것들과 그녀가 발견한 여러 비밀들에 대해 당신들이 믿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167)라고 말하며 메이지의 성장에 놀라움을 표시한다.

메이지는 부모와의 헤어짐을 통해 모든 결말이 동화책의 마무리처럼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메이지는 자신을 원하지 않는 부모가 비난받는 것을

21) Özen, p. 205.

22) Westover, p. 1.

23) 박용수, p. 74.

원하지 않으며 그들이 최대한 부담 없이 자신을 떠날 수 있게 묵묵히 빌과 아이다가 원하는 결과를 직접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소녀는 빌과 아이다의 부도덕함을 확인한다. 나아가 책을 읽게 되면서 과거 감각적인 경험에 의존하던 자신의 인식이 지식을 습득하고 행동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전의 메이지가 수동적이었다면 독자로서의 메이지는 텍스트를 소비하고 응용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녀는 독서를 통해 세상이 멋지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섞어 이 둘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커튼 부인의 집에 들어서는 장면과 클라우드 경과의 켄싱턴 가든 산책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텍스트를 통해 얻은 지식에 대한 메이지의 응용은 아직 단순하고 미성숙한 측면을 보여준다.

메이지는 자신의 감각적 경험과 교육을 통해 그 지식으로 성인사회를 이해한다. 학습에서 얻은 지식을 성인의 행동을 인지하는데 사용했으며 책에 나타난 등장인물, 배경을 자신의 상황에 이입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다. 나아가 보다 성숙한 판단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현실과 지식 사이에 괴리를 느끼며 이 둘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내지 못한다. 메이지는 프랑스에 도착하면서 감각적 경험과 지식을 적절하게 결합함으로써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성인으로서의 도약을 이루게 된다.

3. 감각과 지식의 결합단계

아이다와 빌을 뒤로 한 채 메이지는 클라우드 경, 수전 애시와 도버해협을 건너 프랑스의 불로뉴(Boulogne)에 도착한다. 메이지는 프랑스의 모든 것을 “희미하게 빛나는 넓은 모래사장이 해수욕장과 어우러짐, 관광객과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 언어와 날씨”(187) 등이 모든 것을 한 폭의 그림으로 인식한다. 그녀는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성장했음을 느낀다.

불로뉴에서 과장된 지나침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인식하고 이해하였으며 아주 좋아하였고 자기 것으로 차지하였다. 모든 것

에 적절히 적응하면서 그녀를 위해 기다린 것들에 양손을 얹었다.

(187)

자신의 경험과 독서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변화를 보였으나 메이지에게는 아직 클라우드 경과의 대화에서 나타나듯이 성인들의 대화 속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메이지는 모든 사람들이 프랑스에 가면 들르는 곳인 파리에서 살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하며 자신도 파리에 가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클라우드 경은 “애야, 파리는 우리를 잡아먹을 거야. 그러니까 내말은 그 곳이 엄청 비싸다는 거지”(188)라고 하며 돈을 절약하기 위해 블로뉴에 이삼일 머물고 파리로 떠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메이지는 어떻게 짧은 기간 안에 돈을 절약할 수 있을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녀는 워스 부인이 프랑스에 오게 된 계기를 듣게 되면서 포크스톤에서 헤어졌던 아이다가 바로 워스 부인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워스 부인에게 클라우드 경은 아이다가 누구와 있었는지 그녀의 계획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계속적으로 추궁한다. 워스 부인은 결국 그녀를 방문할 때 아이다와 택시에 함께 탄 남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클라우드 경은 기가 찬듯이 “이번에는 두 명을 만난단 말ियो?” 라고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지만 소녀는 그 두 명을 순전히 ‘하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아직까지 메이지의 인식능력으로는 성인들의 대화에 담겨진 내면의 의미를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다.

메이지는 프랑스에서 자신의 감각적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단계에 다다른다. 마일즈는 독서가 경험의 개념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맥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작품 속 인물들이 세계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를 해야 하고, 둘째, 특정 텍스트와 현재 상황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분별력이 생기게 되면 주인공은 문학의 해석을 통해 실제와의 관계를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⁴⁾ 메이지는 앞서 커튼 부인의 집을 『아라비안 나이트』의 한 장면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현실과 소설 간의 간격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안목이 없는 소비자’에 머물러왔다. 즉 책을 읽었지만 자신의 안목을 통해 성인들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단계가 부족했다.

24) Miles, p. 198.

이제 메이지의 감각적 경험과 지식의 확장은 클라우드 경과 유럽대륙에 도착하는 작품의 후반부에서 극대화를 이루고 자신의 생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메이지는 프랑스에 있는 자신의 보호자 클라우드 경, 익스 부인, 빌 부인을 관찰하며 이들을 평가한다.

먼저 메이지는 익스 부인으로부터 의외의 말을 듣게 된다. 익스 부인은 자신이 볼로뉴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아이다의 친절 덕분이었으며 자신에게 매우 잘해주었다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녀는 클라우드 경에게 “당신의 아내는 나에게 지금까지 보여준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어요. 그녀가 예의범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지요”(194)라고 아이다를 치켜세운다. 이것은 영국에서 알아왔던 익스 부인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아이다를 평한 것이다. 나아가 익스 부인은 “당신[클라우드 경]이 말하는 (아이다의) 악랄한 미소는 내가 본 미소 중 최고였어요. 나는 그녀가 날 어떻게 이용하든 상관없어요. ... 저는 아이다를 수 천 번 용서했으니까요! ... 나는 그녀[아이다]를 이해해요, 나는 그녀를 존경해요”(197)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 한다. 익스 부인은 아이다가 메이지를 버리는 것을 자신이 메이지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몹시 기뻐한다. 익스 부인은 “너희 엄마는 내가 너를 갖길 원해”(194)라고 말하며 메이지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익스 부인은 아이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물론이고 메이지와 함께하기 위해 그간 보여 왔던 충실하고 도덕적인 모습보다 이기적인 성격을 메이지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익스 부인은 메이지를 숙녀로 키우기 위해 부도덕적인 빌 부인의 측근을 없애야 한다며 메이지, 클라우드 경과 같이 프랑스로 건너온 하녀 수전 애시를 영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클라우드 경에게 요구한다. 그러나 아둔한 수전 애시를 해고하라고 청하는 익스 부인은 클라우드 경보다 더 비양심적인 면을 보여준다. 수전 애시를 영국에 다시 데려다 주려고 하는 클라우드 경의 섬세한 마음을 익스 부인은 “친애하는 클라우드 경, 제 생각에는 당신이 참 이상하네요. 그냥 배 샀과 돈을 주세요. 수전은 그녀가 상상도 못한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그녀의 인생에 엄청난 이득을 줄 것이랍니다. 만약 그녀가 잘못된다면 그것은 그녀가 원하기 때문이겠지요”(195)라고 말하며 클라우드 경이 곁에 자신과 메이지만을 둘 것을 희망한다.

클라우드 경은 빌에게 온 편지에서 빌 부인이 자유롭게 빌을 떠날 수 있다는 내용을 읽게 되고 빌 부인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그러나 워스 부인은 그의 편지가 법적으로 부부의 이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순수한 메이지에게 보여줄 내용이 아니라고 하며 편지의 내용을 메이지에게 알리는 것을 꺼려한다. 워스 부인은 클라우드 경의 ‘도덕성’(moral sense)에 호소하며 자신이 그의 ‘열렬한 비서’임을 자처하고, 부도덕한 빌 부인과 수전 애시를 제외하고 셋이서 함께 도덕적으로 살기를 간청한다. 작품에서는 워스 부인이 클라우드 경을 흠모하는 분위기의 장면이 여러 번 나타난다.

‘제가 여기 있어요. 저는 제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클라우드 경과 메이지] 앞에서 확실히 이야기할게요. 저는 빌 부인이 시도할 수 없을 만큼 당신들에게 잘 할거예요. 제가 비록 클라우드 경, 주인님께 옷과 신발을 빗지고 있지만 말이에요. 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신세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저는 이 깊은 은혜를 다 갚아야합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지 무엇이겠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다구요!’ (210)

워스 부인은 메이지의 공부방에서 클라우드 경과 사적이고 진지한 이야기를 자주 했었다. 프랑스에서 클라우드 경에게 하는 간곡한 부탁과 메이지와의 대화에서 안경을 적시며 “나는 그[클라우드 경]를 좋아해. 나는 그를 좋아해”(229)라고 말하는 장면은 여러 학자들로 하여금 워스 부인이 그에게 이성의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작품에서 보여주는 여러 대칭효과를 보면 워스 부인은 가정교사였던 빌 부인과 사회적 위치, 동기, 욕망이 같고, 아이다가 클라우드 경보다 나이가 많듯 워스 부인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클라우드 경에 대한 구애가 가능하다고 본다.²⁵⁾ 그러나 워스 부인이 클라우드 경에게 느끼는 이성적 감정은 작품에서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에 무리가 있다.²⁶⁾

프랑스에서는 빌 부인도 워스 부인과 마찬가지로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메이지는 그녀의 모습에 놀라며 조용히 빌 부인과 워스 부인의 대화를 듣

25) Klein, p. 126.

26) Wagenknech, p. 118.

는다. 메이지를 매우 아끼던 빌 부인은 왁스 부인을 무시하던 이전의 태도와 반대로 소녀를 사이에 두고 왁스 부인과 대화에 열중한다. 빌 부인은 왁스 부인의 불품없는 외모를 폄하하고 빌과의 결혼으로 왁스 부인보다 높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며 서로 양속처럼 지내왔었다. 그러나 빌 부인은 이전의 태도를 고수하지 않는다. 왁스 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저는 확신합니다. 왁스 부인. 그 [클라우드 경]는 당신 없이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헌신한답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당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 저를 도와줄 것이라는 것ですよ!”(233)라고 말하며 클라우드 경을 언급한다.

왁스 부인에게 자신이 보고 느낀 이국적인 프랑스 생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었던 메이지는 왁스 부인과 빌 부인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관찰한다. 메이지는 둘의 대화에서 오고 가는 희미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의미 속에서 불안하지만 선명하게 자신의 계모의 독단적인 행동을 읽게 된다. 왁스 부인은 점점 빌 부인의 아첨과 알랑거림으로 그녀에게 압도당한다. 사실 왁스 부인은 클라우드 경에게 도덕적인 사고를 하라고 강요하거나 빌 부인과 클라우드 경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비난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왁스 부인이 매우 도덕적인 인물이었다면 부도덕한 클라우드 경의 돈으로 프랑스에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거나 그와 메이지의 숙소에서 지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빌 부인의 언행에 넘어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메이지는 빌 부인이 ‘자유’의 몸이 된 것을 기뻐하고 클라우드 경과 결혼해서 이 둘이 자신의 부모가 되는 것을 상상한다. 왁스 부인은 빌 부인의 태도 변화에 대해 메이지에게 “만약 클라우드 경이 빌 부인을 거부하게 된다면, 그녀는 너를 가지고자 할게야. 그렇다면 그는 그녀의 차지이 되지”(236)라고 말한다. 빌 부인은 클라우드 경의 약점인 메이지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경을 차지하고자 한다. 또한 빌 부인은 왁스 부인과의 대화를 통해 왁스 부인과 메이지 사이에 오해를 만들어 왁스 부인을 메이지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수작을 부린다.

샤인은 빌 부인에 대해 악랄하거나 증오에 가득 찬 인물이 아니며 그저 무의식적으로 도덕관념이 없을 뿐 메이지에 대해 악한 감정은 없다고 주장한다.²⁷⁾

27) Shine, p. 118.

빌 부인은 자신에게 이득을 안겨줄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다. 가난한 오버무어 양에서 빌과의 결혼을 통해 신분상승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빌과의 결혼 후 빌 부인이 된 오버무어 양은 클라우드 경의 재력과 뛰어난 용모를 보고 그와 함께 살고자 한다. 빌 부인은 클라우드 경과 한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메이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빌 부인과 클라우드 경이 한 지붕 밑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비난을 메이지가 같이 살게 됨으로써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메이지가 함께 살게 되면 클라우드 경의 마음을 차지한 메이지 외에 그의 재산과 신분 등 외적인 모든 것이 빌 부인의 것이기 때문에 메이지를 볼모로 클라우드 경과 그의 모든 것을 자신의 곁에 두고자 한다. 클라우드 경은 메이지에게 자신과 살기 위해서 워스 부인을 포기하라고 이른다. 메이지는 그의 조건을 듣고 “저는 만약, 만약에 클라우드 경이 빌 부인을 포기하면 워스 부인을 포기할게요”(273)라고 자신의 조건을 내건다.

메이지가 프랑스 숙소에 도착하여 빌 부인에게 클라우드 경과 한 약속을 알리자 그 조건을 들은 빌 부인은 분노를 폭발한다.

메이지	클라우드 경을 포기할건가요?
빌 부인	넌 위해 말이니, 이 골칫덩어리야? 네 지독하게 작은 생각을 사악함으로 채워 넣은 저 늙어빠진 미친 악마를 위해 말이니? 너는 지금까지 끔찍한 위선자로 살아오면서 내가 노예처럼 너에게 사랑을 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착각 속에 살게 했니? (283-284)

빌 부인은 아이다가 포크스톤에서 메이지를 설득하듯 자신이 소녀를 위해 희생하고 메이지의 사랑을 갈구했음을 강조한다. 아직 법적으로 부부사이인 빌을 놔두고 클라우드 경을 “네 아빠야.”라고 부르며, “우리는 빌과 그의 전처를 대신하는 너의 보호자란다, ...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285)라는 모순된 말을 되풀이 한다. 엄밀히 말하면 빌 부인과 클라우드 경은 정식적으로 이혼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둘은 부부가 될 수 없고 메이지의 보호자를 자처할 수도 없다. 실제 메이지의 법적 보호자는 빌과 아이다이기 때문이다. 메이지는 빌 부인을 좋아하지만 그녀는 그저 클라우드 경과 친밀한 여자이고 오히려 클라

우드 경이 엄마와 같은 존재이다.²⁸⁾

메이지에 대한 빌 부인의 집착은 그녀가 메이지를 인간으로 대하기보다 그녀의 불륜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상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메이지를 거칠게 끌어안은 빌 부인에 대해 웨스트오버는 빌 부인이 12살 소녀 메이지 그 자체와 클라우드 경이 어린 소녀에게 품는 사회통념에 어긋난 욕망의 상징으로서의 메이지, 이 둘을 붙잡고 있다고 서술한다.²⁹⁾ 빌 부인이 클라우드 경과 메이지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빌 부인은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인 메이지가 자신을 거부하자 소녀를 ‘작은 천사’에서 ‘골칫덩이’로 전락시키고 가차 없이 메이지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린다.

클라우드 경은 메이지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다. 메이지가 빌과 아이다와 이별하면서까지 클라우드 경과의 프랑스행을 택한 것은 그가 자신을 둘러싼 성인들 중에 가장 자신을 동등하게 대해줬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경은 외출을 하면 메이지에게 보드게임과 자신이 관람한 판토마임 팜플렛을 주었으며 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빌과 아이다가 자신들의 딸에게 보이지 않았던 관심과 사랑을 준다. 처음 빌 부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을 가정적인 남자라고 소개하듯, 클라우드 경은 메이지를 마치 엄마처럼 섬세하고 자상하게 챙긴다. 클라우드 경에 대한 메이지의 믿음은 워스 부인과의 대화에서 잘 나타난다. 메이지는 “오직 그 사람[클라우드 경]만 원하니?”라고 묻는 워스 부인의 대답에 “그분 아니면 아무와도 살지 않겠어요.”(245)라고 답하며 워스 부인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이야기한다.

애초 제임스의 작품구상에서 클라우드 경은 훗날의 외모에 외롭고, 버려진 인물로 묘사될 예정이었으며 작품 속에서의 비중 또한 적었다. 그러나 본 작품에서는 쾌활하지만 나약하고 자신의 아내와 애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영웅이 되다만 인물’(hero-manque)로 메이지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는 인물로 분석된다.³⁰⁾ 그러나 클라우드 경에게도 약점이 있다. 아이다는 메이지의 공부방에 혼자 들어오게 되면 클라우드 경이 “나비처럼 가벼운” 우유부단한 성격을 지닌 것에

28) Wagenknecht, p. 124.

29) Westover, p. 1.

30) Shine, p. 118.

대해 불만을 토로하곤 했다. 메이지와 워스 부인과의 대화에서 클라우드 경의 나약함은 잘 드러난다. 메이지는 워스 부인에게 “클라우드 경이 귀부인[아이다]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않고 기억했다”(92)고 말한다. 소녀는 클라우드 경에게 야생 코끼리보다 무서운 아이다와 왜 결혼했는지 물었지만 클라우드 경은 “단지 내가 두려웠기 때문에”(97)라고 대답한다.

워스 부인은 프랑스에서 클라우드 경이 예의 바르고 도덕적인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워스 부인은 클라우드 경의 본성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 빌 부인과 헤어지는 것이 두렵다면 자신이 대신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며 그를 설득하지만 나약한 클라우드 경은 그녀의 제안을 거절한다.

워스 부인	클라우드 경, 프랑스의 모든 공기가 당신이 빌 부인을 무서워 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클라우드 경	그래. 나는 그저 그녀를 무서워할 뿐이야! (200)

클라우드 경은 자신을 둘러싼 여성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있다. 아이다와 결혼하고 빌 부인과 만남을 가지는 이유는 그들을 ‘단순히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메이지는 클라우드 경에게 “왜 나는 두려워하지 않나요?”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 이 물음에 대해 클라우드 경은 “만약 네가 나이가 더 많았었다면 너도 무서워했을 거야”(97)라고 답한다. 이처럼 그는 여성들에게 전체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워스 부인은 빌 부인을 포기하지 못하는 클라우드 경에게 “자신의 열정에 빠져있는 노예”(248)이며 나아가 그는 자기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한다.

클라우드 경은 수전 애시를 영국에 데려다주고 자신의 일을 정리한 다음 다시 프랑스로 돌아온다. 메이지는 영국에서 그와 돌아다닌 것처럼 프랑스에서도 함께 아침을 먹으러 거리로 나선다. 그러나 카페로 향하는 길에서 이 둘은 아무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영국에서 나누었던 교감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다는 것을 메이지는 인식한다. 카페에 앉아 클라우드 경은 메이지에게 “그녀[워스 부인]를 떠나 보낼 수 있니?”(264)라고 물어본다. 그는 자신과 빌 부인, 메이지 세 명에서 합

게 살기를 원하며 자신과 빌 부인은 메이지를 떠나보낼 수 없고 자신의 전부임을 거듭 강조한다. 클라우드 경의 제안에 메이지는 당황한 기색을 보인다. 자신을 챙겨주는 워스 부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면서 스스로의 선택을 놓고 두려움을 느낀다.

사실 그녀[메이지]는 두려움으로 오한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클라우드 경에 대해 알았던 것처럼 그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갑자기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268)

클라우드 경은 메이지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는 메이지와 ‘공정한 게임’을 한다.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려고 의도하지도 않고 메이지를 재촉하거나 떠밀지도 않는다. 메이지는 워스 부인을 만나고 나서 그의 제안에 대답을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메이지와 계부는 워스 부인을 만나러 가는 도중 기차역에 들린다. 메이지는 파리행 기차를 보고 즉흥적으로 클라우드 경에게 파리에 같이 가자고 한다.

메이지	나는 우리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저를 데리고 가지 않을래요?
클라우드 경	정말 나를 따라 갈거니?
메이지	네, 그럼요. 가요.
클라우드 경	내가 표를 끊을까?
메이지	네, 표를 끊어요. (272)

그러나 메이지는 새하얗게 겁에 질린 클라우드 경의 얼굴을 보게 된다. 클라우드 경도 메이지만큼이나 선택의 순간이 두렵고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주저하는 사이 파리행 기차는 떠나 버린다. 메이지는 클라우드 경의 제안에 동등한 자신의 제안을 제시한다. 클라우드 경이 빌 부인을 포기할 경우 자신도 워스 부인을 포기하겠노라고 자신의 결정을 전달한다. 기차역에서 메이지가 파리에 가자고 한 것은 그녀가 클라우드 경을 시험하려는 것이었다. 김동수는 메이지가 클라우드 경을 시험함으로써 메이지에 대한 클라우드의 사랑이 다른 성인들의 사랑처럼 거짓임을 알아챈다고 주장한다.³¹⁾ 그러나 클라우드 경은 작품에 등장하는

성인들 중 가장 메이지에게 애정이 있고 자유롭게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물이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자신에 대한 확신과 빌 부인과 그가 눈길을 주었던 수많은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순간의 만족을 거부할 수 있는 자기절제능력이다.

일전에 워스 부인은 “빌 부인은 그[클라우드 경]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그를 영원히 갖겠지.”라고 했다. 아무리 클라우드 경이 빌 부인을 증오했다 그와 상관 없이 “빌 부인은 클라우드 경을 증오했지 않으니까”(249) 클라우드 경은 빌 부인에게 묶여 살지 않을 수 없음을 단정했었다. 메이지는 그녀의 제안으로 클라우드 경의 얼굴에 절망이 비춰지고 있음을 알았고, 클라우드 경이 자신의 나약함을 걱정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샤인은 클라우드 경은 자신의 나약함을 초월할 수 없지만 메이지에 대한 사랑은 진심임을 서술한다.³²⁾ 바겐크넛 또한 클라우드 경이 자신에게 부족한 용기와 진실성을 메이지가 대신 성취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메이지에게 자유를 준다고 주장한다.³³⁾ 클라우드 경은 자신과 빌 부인의 관계를 정당하게 만드는 메이지에게 빌 부인과 워스 부인 중 한 명을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준다. 반면 빌 부인과 워스 부인은 서로의 욕심을 위해 앞 다투어 메이지에게 자신과 함께 살자고 한다. 메이지는 빌 부인에게 자신의 조건을 말하고 그녀의 제안을 들은 빌 부인은 메이지가 저항할 수 없게 꼭 껴안는다. “메이지를 놓아줘.”라고 클라우드 경은 빌 부인에게 소리를 지르지만 그녀는 “절대 안돼, 절대로, 절대로!”(281)라고 말하며 메이지를 압박해온다. 웨스트오버는 메이지에 대한 빌 부인의 집착은 빌 부인 자신의 이기심 그 이상을 내포한다고 주장한다. 샤인은 그 당시 가부장적 법 구조를 지적하며 법원은 부모에 대한 판결만 내릴 뿐 자녀에 대한 조치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메이지가 약자의 위치에서 성인들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³⁴⁾

메이지의 ‘도덕성’이 결여되었다고 비난했던 워스 부인은 메이지의 제안에 감격스러워하며 “메이지가 조건을 냈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 아이는 올바른

31) 김동수, p. 139.

32) Shine, p. 118.

33) Wagenknecht, p. 131.

34) Westover, p. 4.

일을 한거야”(281)라고 말한다. 빌 부인과 워스 부인의 계속되는 실랑이를 제지한 것은 클라우드 경이다. 클라우드 경은 메이지의 ‘특별함’과 자신과 빌 부인이 메이지에게 부족한 보호자임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내적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³⁵⁾ “클라우드 경은 메이지를 구하고 그녀를 꼭 붙잡았다. 그녀를 앞에 두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시끄러운 상대방들(빌 부인, 워스 부인)을 바라보았다”(283). 클라우드 경은 빌 부인을 진정시키고 워스 부인과 동행하는 메이지와 작별인사를 한다.

문지방에서 메이지는 멈춰 섰다. 그녀는 계부에게 손을 뺐었다. 그는 그 손을 잠시 잡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잘 가,’ 그는 대답했다. (286)

클라우드 경의 손길은 아이다와 빌 부인, 워스 부인의 위협적인 포옹과 거리가 있다. 계부의 손길은 메이지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한다. 웨스트오버는 메이지와 클라우드 경이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을 메이지가 클라우드 경의 솔직한 애정과 자신을 동등하게 대우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서술한다.³⁶⁾ 메이지와 클라우드 경의 부적절한 사랑을 암시하는 애매한 표현과 장면이 보일지라도 클라우드 경은 메이지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며 그녀의 선택이 올바른 판단이자 행동이 되도록 이끌어 주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장면에서 메이지가 워스 부인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자기 주위의 여러 성인들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아직 메이지는 갓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결정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바겐크넛은 메이지의 선택이 ‘도덕적’ 판단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³⁷⁾ 이것은 소녀의 선택이 워스 부인의 사랑과 따뜻함, 메이지를 받아드리는 마음에 응답한 것이다.³⁸⁾ 사실 워스 부인이 지닌 지적능력, 인식, 사물에 대한 판단을 생각하면 그녀는 메이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모상은 아니다. 그런데도 메이지가 워스 부인을 선택한 이유는 아동의 본능적인 욕구

35) Shine, p. 118.

36) Westover, p. 9.

37) Wagenknecht, p. 125.

38) Shine, p. 120.

인 사랑, 친절함,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워스 부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 메이지는 지식의 성장이 있었다. 정보를 수동적으로 인지하던 소녀에서 소설과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감각적 경험과 소설 속의 내용을 혼동하는 단계에서 평가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물을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단계에 머물렀다. 앞서 부모와 이별하는 메이지의 판단에는 직감이 많이 작용했다. 그런데 블로뉴에서는 자신을 둘러싼 성인들에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예,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갖게 되었고, 그들과의 대화에서 그 판단 결과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감정보다 실제 일어나는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며 자신에게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다.

자신[메이지]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된 사실이 소녀를 도와주었다.
그녀가 배우고 배웠던 것들이 비로소 마지막에 그 사실을 배우게 했다.
그래서 (빌 부인의 물음에) 즉시 대답한 것은 그녀[빌 부인]에게
그저 상냥하게 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282)

메이지는 아이다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빌 부인을 잘 알기 때문에 커든 부인의 집에서 빌과의 작별에서처럼 최대한 빌 부인의 성미를 건들이지 않고 이별을 하려고 한다.

메이지는 ‘예, 아니오’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지니기 위해 감각적 경험과 자신이 받은 교육을 바탕으로 자신이 맞닥뜨린 세계와 끊임없는 소통하여 복잡한 성인사회에서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갔다.³⁹⁾ 감각적 경험과 지식의 경계를 넘나들던 메이지는 선택의 순간 직감에 의지한 선택을 배제하고 자신의 관찰과 판단을 통해 가장 이로운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 선택은 메이지가 도덕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대로 내린 첫 번째 비판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메이지는 경험과 지식이 확장함에 따라 인식 능력 또한 성장하게 되었다. 도덕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선택을 했지만 아직 성의식을 분별하는 능력은 미숙하다. 그러나 경험과 지식의 조화로운 결합은 메이지가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고 인식 능력을 형성하는데 있어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고 다가오

39) Miles, p. 199.

는 메이지의 미래가 희망적임을 예측할 수 있다.

Ⅲ. 인식의 확장

1. 도덕적 판단 능력

애트리지는 이 작품이 서툴고 무책임하며 구상이 잘못되거나 유행에 뒤떨어진 가정교사의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풍자로 교육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⁴⁰⁾ 메이지는 약 7년 동안 가정교사의 가르침을 받으며 생활한다. 아이다와 빌이 사실상 메이지의 부모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실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은 가정교사인 오버무어 양과 워스 부인이다. 그러나 오버무어 양과 워스 부인은 빅토리아 시대에 들어 생기기 시작한 예비 가정교사를 위한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그들을 고용한 아이다의 취지는 자녀의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아이다와 빌은 메이지를 위한 가정교사를 고용하나 이들은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가정교사에게 필요한 교육적 자질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이다가 오버무어 양을 고용한 이유는 단순히 그녀가 “숙녀이지만 집안이 매우 가난하며 집에 일곱 자매를 돌봐야”(24)했고, 워스 부인(Mrs. Wix)을 고용한 이유도 그녀가 갈 곳 없는 가난한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애트리지는 헨리 제임스의 형이며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의 1892년 강연을 언급하며 메이지의 가정교사들이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기계적인 반복 학습(rote-learning)을 메이지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트리지는 오버무어 양을 다양한 재능이 있지만 뒤죽박죽 섞여있고 암기를 강조하며 실전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빌 부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한다.

... 오버무어 양은 날짜들을 곧잘 이야기할 수 있었고(메이지에게 책을 스스로 쥐게 했으며), 말라바(인도제의 화려한 프린트 손수건)의 품질에 대해 말할 수 있었다. 그녀는 악보 없이 여섯 곡을 연주할 수 있었고 나무와 집, 그 외 어려운 부분을 아름답게 그릴 수 있는 능력

40) Attridge, p. 30.

이 있었다. (32)

훗날 빌 부인이 되는 오버무어 양은 메이지가 브라이튼에 있는 기숙학교에 입학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자신의 교육방법을 고수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메이지의 교육과 빌의 친구들을 대접하는 일을 동시에 하게 된 빌 부인은 메이지의 교육에 대해 점점 무관심해진다.

빌 부인의 무관심과는 반대로 클라우드 경은 메이지의 바람대로 메이지가 학교수업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 메이지는 클라우드 경 덕분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학교는 “맑은 기상이 반짝이며, 아주 신나는 곳이고, 지하철에서 나와 학교가 있는 글로어가(Glower Street)를 지나면 자신이 배울 교과목들이 거리 곳곳에 널려 있을 것”(135)으로 상상한다. 오버무어 양은 빌 부인이 되어서 클라우드 경과 의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메이지에게 학교에 가면 배우게 될 과목에 대해 이야기한다.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강의를 듣게 될 거야. 너는 수업에 들어가게 될 테지. ...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랑스 문학과 그 정스러운 역사야. 너는 엄청 똑똑한 아이들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것이란다.” (110)

그러나 메이지의 상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린다. 현실에서는 메이지가 배울 과목들이 “지식의 원천인 넓은 회색빛 방을 가득 채웠고, 선생님은 대체로 듣기 싫은 목소리 톤으로 그녀를 화나게 했다. 그 목소리는 비쭉 내민 빈 물병 같은 열굴들이 정적 속에서 열 맞춰 앉은 교실을 울려 퍼졌다”(136). 빌 부인이 강조하는 프랑스 문학과 역사는 단순 암기에 불과하고 학습자와 교수자의 소통이 부족한 강의가 대부분이다. 같이 강의를 들은 빌 부인조차도 학교 수업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듯 “너무나 흥취하지만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득이 될 거야”(136)라고 메이지를 달랜다. 애트리지는 메이지가 빌 부인에게 받은 단순 암기식 수업과 글로어 가에 있는 학교에서 받은 수업이 지식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knowledge-that)을 풍자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메이지에게 강요되는 형체가 있는 지식의 암기와 반복만을 강조하는 교육을 ‘글로어가 방식의 교육’(Glower

Street education)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⁴¹⁾

웁스 부인은 빌 부인에 비해 배운 것이 적고 예술에 대한 재능이 전무하지만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다.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그녀가 읽은 소설 중 일부들이었고, ... 이들은 모두 사랑과 아름다움, 백작부인과 사악함에 대한 것이었다. 웁스 부인과의 대화는 사실상 끝없는 묘사와 거대한 낭만의 정원임과 동시에 자신의 인생, 가정에 대한 이야기였다”(32). 빌 부인의 피아노 연주, 회화 수업과는 성격이 다른 웁스 부인의 교육은 메이지에게 읽기의 즐거움을 가져다주었으며 빌 부인의 수업에 비해 형식을 갖추지 않고 메이지의 상상력을 자극해준다.

웁스 부인의 가르침에도 한계가 있다. 블로뉴에서 메이지에게 도덕성이 있는지 묻는 웁스 부인의 태도는 이제껏 가르쳐온 메이지의 지식과 도덕성에 대한 교육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많다. 낭만적인 이야기로 메이지에게 문학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웁스 부인은 프랑스에서 메이지에게 도덕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빌 부인과 마찬가지로 글로어가 방식의 교육, 암기를 통해 도덕성을 주입시키고 메이지가 암기한대로 대답하기를 원한다. 자신의 도덕성을 추궁하는 웁스 부인 앞에서 메이지는 클라우드 경과 빌 부인을 도덕성 시험을 참관하는 사람에 비유한다. 시험관 웁스 부인과 참관자인 클라우드 경과 빌 부인 사이에서 메이지는 웁스 부인이 원하는 도덕성을 끌어내지 못한다.

(메이지의 도덕성에 대한 웁스 부인의 압력은) 소녀로 하여금 수요일에 곧잘 외웠던 문장을 금요일에 잊어버렸던 일을 회상하고 현재 위우고 있는 지문(도덕성)으로 인해 얼마나 힘들고 슬픈지를 생각했다.
(281)

메이지는 웁스 부인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웁스 부인은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상징으로 여길 수 있는 시력교정기(straighter) 너머로 책을 단듯이 “그럼 너는 그것(도덕성)을 잃어버린 거야”(280)라고 단정 지어 버린다.

웁스 부인과 클라우드 경이 메이지에게 준 ‘지식’은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클라우드 경이 메이지에게 가르친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

41) Attridge, p. 36.

유'라면 왁스 부인의 지식은 정형화된 것이다. 왁스 부인은 프랑스에 도착한 이후 메이지에게 지속적으로 '도덕성'에 대해 상기시킨다. '너 정말 진심으로 도덕성이 없는 거니?'(222), '너 또 그걸(도덕성) 잃어버린거니? ... 내가 너의 도덕성을, 내가 여태껏 너에게서 끌어내지 않았니?'(279)라는 말로 메이지에게 도덕성을 강조한다. 왁스 부인은 메이지에게 도덕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 지으며 그녀가 내적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⁴²⁾ 그러나 메이지의 도덕성은 가까이서 그녀를 지켜본 왁스 부인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해들리(Tessa Hadley)는 어린 소녀의 의식에 침범하는 왁스 부인의 강압적인 행위가 괴롭고 추하다고 주장한다.⁴³⁾ 교과서적인 '도덕성'을 추구하는 왁스 부인은 클라우드 경이 메이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왁스 부인	당신은 그 싹을 뽑아버렸어요. 그것의 생명이 움트기 시작할 때 죽여 버렸다고요.
클라우드 경	나는 아무것도 죽이지 않았어. 반대로 나는 새 생명을 불어넣었지. 이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몰라. 나는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할지, 다가가야할지 나는 몰라.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내가 한 번도 접해 본적이 없는 아름다운 것이야. 그건 아름답고 성스러운 것이야. (280)

왁스 부인과 빌 부인이 글로어가 방식의 교육을 상징한다면 클라우드 경은 메이지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가르침을 준다. 클라우드 경은 메이지를 둘러싼 성인들 중 가장 메이지를 인간적으로 대하는 인물이다. 클라우드 경의 손길은 메이지와 자신의 입장이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메이지와 눈을 맞추거나, 등을 토닥이는 행위 등을 통해 메이지 개인의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하고 메이지를 사이에 두고 옆치락뒤치락하는 복잡한 성인들의 관계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클라우드 경의 행위는 빌이 메이지와 이별을 하면서 등을 두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빌은 메이지의 등을 마치 “모들이 그녀(메이지)가 목이 메었을 적에 소녀의 등을 세차게 두드리는 것”(153)처럼 힘을 실어 토닥인다. 폭력적인 빌의 행

42) Tessa Hadley, "What Maisie Knew: Elders and Betters and Henry James", *Oxford Journals*, 46 (1997), p. 219.

43) Hadley, p. 220.

위는 메이지를 위축하게 만들었다. 클라우드 경의 가르침은 프랑스에서 메이지와 함께 마지막 외출을 하며 최고조에 이른다. 클라우드 경은 메이지 주위의 성인들에게서 조롱과 비웃음을 받지 않으며 배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인식의 방식을 깨우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워스 부인과 영국으로 향하는 그녀의 선택을 아무 말 없이 받아드린다. 열린 생각을 유도하는 클라우드 경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메이지는 앞서 암기와 반복을 주장하는 워스 부인의 ‘도덕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그녀는 워스 부인의 교육과 평가의 불일치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워스 부인이 빌 부인의 도덕성에 관심을 갖는 만큼 (메이지 또한) 워스 부인의 도덕성에 호기심을 갖는다”(238).

가정적인 남자임과 동시에 할머니처럼 아이를 좋아한다고 자신을 오버무어 양에게 소개하던 클라우드 경은 메이지에게 그녀의 가정교사들보다 더욱 값진 교육을 주고 이별한다. 클라우드 경은 메이지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리며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클라우드 경은 그의 약점을 통해 메이지에게 자유와 선택이라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클라우드 경과 빌 부인을 뒤로한 채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에서 워스 부인과 메이지는 갑판에서 대화를 나눈다.

워스 부인	난 뒤돌아보지 않았어. 너는 봤니?
메이지	네. 클라우드 경은 보이지 않았어요.
워스 부인	발코니에도 없었어?
메이지	클라우드 경은 안 보였어요.
워스 부인	결국 그녀에게 갔구나,
메이지	오, 저도 알아요! (287)

메이지의 “오, 저도 알아요!”에서 ‘안다’는 것은 볼로뉴 호텔 방에서 빌 부인과 워스 부인이 메이지의 양육을 가운데 두고 벌였던 소란스러운 행동들을 비롯하여 판에 박힌 워스 부인과 빌 부인의 가르침은 포함하지 않는다. 메이지가 ‘아는 것’은 그녀의 가정교사가 정의하는 앎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워스 부인은 메이지를 결눈질하며 그녀가 정확하게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

해 궁금해 하지만 워스 부인은 메이지가 무엇을 알았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메이지가 아는 것은 워스 부인의 관점에서의 도덕성이나 지식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메이지가 깨달은 것은 클라우드 경과 빌 부인의 결합이 도덕적인지 부도덕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혹자는 메이지가 워스 부인을 선택하는 이유를 워스 부인이 도덕적이기 때문이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메이지의 결정은 자신이 도덕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이기적인 빌 부인이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는 클라우드 경 대신 아둔하지만 자신을 보호해 줄 워스 부인과의 영국행을 선택한 것이라고 하겠다. 김동수는 메이지가 안 것들 정의하기에는 모호하지만 과거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운명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정체성을 알게 된다고 해석한다.⁴⁴⁾ 즉 이것은 클라우드 경과 손을 잡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나누었던 클라우드 경을 포함한 복잡한 관계의 성인들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메이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일 것이다.

2. 성의식의 확장 가능성

제임스는 이 소설의 서문을 통해 메이지의 지식과 의식의 확장의 방향을 설정해 준다.

확장이 진행되고 있는 작은 의식은 구원받아야 하고 인상의 저장 공간으로써 받아드려져야 하며 이 구원은 무시와 아픔으로 회피해지고 무의미해진 경험보다 이득이 있고 자신감을 성취할 수 있는 경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3)

그러나 성장을 하고 있는 어린 소녀의 생각은 항상 사실과 큰 격차와 틈을 두고 있기 때문에 메이지는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실제 메이지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완벽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묵묵히 독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다. 독자는 메이지에게서 얻은 정보 그 이면에 담긴 의미를 알고 소녀가 준 정보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44) 김동수, p. 151.

있는 것을 알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며 그녀의 정보를 해석하는 것에서 재미를 느낀다.

메이지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고 독자와 메이지가 공유하는 정보가 많아짐에 따라 메이지와 독자 사이의 틈은 줄어들게 되고 그녀는 자유, 선택, 도덕성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 그러나 메이지가 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중 그녀가 마지막까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성(sexuality)이다. 오이(Kevin Jon Hisao Ohi)는 화이트(Allon White)의 말을 인용하여 제임스 특유의 ‘저속함과 애매모호함’을 언급했다. 그는 이 작품이 전반적으로 성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며 성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단어나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한다.⁴⁵⁾ 나아가 해들리는 성의 부재 속 존재(presence in absence)가 작품 전체에 유지되면서 이 소설이 외설스러우면서도 결백성이 갖는 이중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다.⁴⁶⁾

빌의 집에서 지내는 첫 해에 메이지는 빌의 친구들을 만난다. 이 신사들은 메이지를 여기저기 잡아당기고 입을 맞추며 담뱃불을 붙이게 하고 그녀의 무릎을 거칠게 움켜쥐고 소녀가 비명을 지를 때까지 종아리를 잡아당겼다. 신사들은 메이지의 비명을 듣기 좋아하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다리를 ‘이쑤시개’에 비유한다. 메이지는 자신의 다리에 대해 놀리는 신사들을 보며 ‘이쑤시개’라는 단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어느 날 메이지는 켄싱턴 가든에 놀러가서 끈임 없이 다른 아이들의 다리를 보며 식모 모들에게 다른 아이들의 다리도 이쑤시개처럼 보이는지 물어본다. 너무나 솔직한 모들은 메이지에게 “오 애야, 너는 어딜 가서도 너만큼 가느다란 다리를 보지 못할 거야”(19)라고 대답한다. 모들의 대답은 메이지에게 자신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 확실히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소녀는 자신의 앙상한 다리에 대해 콤플렉스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쑤시개’는 메이지의 체구를 표현함과 동시에 빌의 친구들의 소녀를 향한 변태적인 취향(소아성애자적 취향)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들은 메이지에게 성적욕구를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⁷⁾ 말하자면 이쑤시개는 메이지의 별명이자 남성의 성적욕구를 보여주는 이중적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45) Kevin Jon Hisao Ohi, *Innocence and Rapture: The Erotics of Childbook in Aestheticism* (New York: Cornell UP, 2001), p. 322.

46) Hadley, p. 222.

47) Ohi, p. 331.

성적 표현은 메이지에 국한되지 않고 워스 부인의 죽은 딸 클라라 마틸다에게서도 나타난다. 메이지는 자신의 별명을 이쑤시개라고 생각한 것처럼 클라라 마틸다가 끔찍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워스 부인의 고백을 듣고 진심으로 워스 부인의 죽은 딸이 자신의 언니라고 생각한다.

해로우 가를 건너다가 잔혹한 마차에 치어 죽은 어린 소녀 클라라 마틸다는 자신이 일곱 형제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30)

클라라 마틸다를 치어 죽인 ‘잔혹한 마차’와 그 사고 역시 사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워스 부인의 고백은 독자들에게 남성성이 강한 단어인 ‘마차’를 통해 남녀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끔찍하게 없애는 이미지를 상상하게 만든다. 메이지에게서 자신의 딸의 모습을 찾으려는 워스 부인은 소녀에게 자신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녀의 남편 워스 씨(Mr. Wix)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 메이지는 그가 오래전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듣게 되며 워스 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철저히 없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죽은 클라라 마틸다에 대한 책임이 베일에 가린 워스 씨에게 있고 워스 부인과 워스 씨의 관계가 깊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빌 부인과 클라우드 경의 관계도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다. 메이지의 ‘교육을 위해’ 빌의 집을 드나드는 클라우드 경은 항상 수필집을 한 아름 들고 온다. 빌 부인과 클라우드 경의 교제는 메이지의 교육문제를 떠나 서로의 소식을 묻고 상담하는 시간으로 바뀐다. 이 모든 것이 ‘메이지를 위해서’라고 빌 부인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클라우드 경과 함께 들어가 방문을 닫는다. 메이지는 자신의 다리를 놀리는 신사들의 진심을 읽지 못하듯 이 둘이 닫힌 문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미 빌의 관심 밖에 있는 빌 부인은 여러 남성들과 만남을 가져왔다. 메이지는 순수하게 “매력적이고 더 이상 거리낄 게 없는(exposed) 여성은 그 ‘성격’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135)는 빌 부인의 말을 곱씹으며 그녀의 문란한 생활을 지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가 철저히 자신이 말한대로 행동하는 모습에 감탄한다.

클라우드 경은 자신이 처리할 업무와 수전 애시를 무사히 돌려보내기 위해 영국에 갔다가 하루 만에 다시 프랑스에 돌아온다. 그는 메이지와 아침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 나갈 준비를 하는 중 자신의 ‘지팡이(stick)’가 없음을 알아챈다. 그가 빌 부인의 침실에 지팡이를 두고 온 것이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 클라우드 경이기에 메이지는 이상하다고만 여길 뿐 이에 개의치 않고 그와 함께 거리를 나섰지만 이 둘은 카페에 가는 길에서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는다. 클라우드 경이 두고 온 지팡이는 내면적으로 그의 남성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클라우드 경이 빌 부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카페에서 메이지에게 “웁스 부인을 포기해”라는 제안을 암시하는 사물로 해석된다.

풋(Gorley Putt)은 메이지와 클라우드 경 또한 다른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부패한 성인사회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⁴⁸⁾ 작품 속 성인들과 다른 점은 메이지가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에 성인들의 문란한 삶이 부각된다는 것이다.

클라인은 클라우드 경은 여성을 두려워하면서도 닮은 대로 많은 여성들을 만나며 어린 소녀에게 자신의 열정과 반대로 ‘아들’, ‘늙은이’, ‘오랜 친구’, ‘젊은 친구’, ‘아저씨’, ‘우리 아들 메이지’처럼 남성적인 호칭으로 부르며 가까이 두지만 결국 그녀 또한 자신이 두려워하는 여성임을 인지하며 메이지를 거절한다고 주장한다.⁴⁹⁾ 제임스는 『메이지가 깨달은 것』을 구상하던 중 작품에 등장하는 성인들을 모두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을 가진 부모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 초기 계획은 웁스 부인, 빌 부인, 클라우드 경 모두 아이를 잃은 경험이 있는 인물로 설정했으나 본 구상이 작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구상은 실제 작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작가의 초기 의도를 전제로 하고 메이지에 대한 클라우드 경의 태도에서 클라우드 경이 메이지에게 딸 이상의 마음을 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에 는 억지가 있다.

결과적으로 메이지는 지적으로 웁스 부인을 훨씬 앞서나가며 자신이 올바르고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메이지는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면서 비로소 청소년이 되고 그녀의 어린 시절에 작별을 고한다. 작가는 ‘메이지의 어린 시절의 죽음’(the death of Maisie’s childhood)을 통해 새로운 메

48) Putt, p. 252.

49) Klein, p. 119.

이지의 탄생을 알린다. 지식과 경험의 확장으로 다양한 일을 겪은 메이지는 그녀의 ‘순수함’으로 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인들도 성에 대해 메이지가 알 수 없게 그들의 대화와 행동 속에 숨겨둔다. 그러나 이제 성숙해진 메이지는 프랑스에 내려둔 순수성을 뒤로한 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의 영역에서도 의식의 확장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순수함은 지식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지만 작가는 지식이 메이지에게 필요악이라는 생각을 한다.⁵⁰⁾ 메이지는 감각적 경험과 지식을 쌓아가며 성숙의 단계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메이지가 깨달은 것』은 순수성의 죽음의 의미에서 풍기는 부정적인 뜻의 ‘공포 소설’이라기보다는 소녀의 도덕성과 의식 그리고 정체성의 확장을 축하하는 ‘성장 소설’로 보아야 할 것이다.

50) 노은미, p. 108.

IV. 결 론

헨리 제임스는 어린 소녀를 통해 그녀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성인사회의 부패와 타락을 보여준다. 서술자는 메이지의 천진한 눈으로 바라보는 성인사회를 묵묵히 서술하고 독자들은 메이지와 독자의 지식의 차이에서 서술된 정보 이상의 내용을 얻게 되는 아이러니를 경험한다. 메이지는 성인들의 대화와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인들은 메이지에게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며 소녀를 혼란스럽게 한다.

메이지는 사실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순수한 여섯 살 소녀로 이혼한 부모 빌과 아이다의 집에 반년 씩 머물며 생활한다. 소녀는 빌과 아이다의 이혼과 재혼, 아이다의 두 번째 남편인 클라우드 경과 빌의 두 번째 부인이자 자신의 가정교사였던 오버무어 양의 부적절한 관계를 목격하고, 이들의 관계를 맺고 끊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가 된다. 메이지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경험과 가정교사의 가르침으로 자신의 지적능력을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는 성인사회를 이해하려 한다. 메이지가 겪는 경험의 확장은 세 단계로 나뉘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감각적 경험의 단계이다. 메이지는 성인들의 행위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며 그들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소녀는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 사물에 대한 인식이 백지상태나 다름 없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효율적으로 분류하는 능력도 부족하다. 메이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인들의 불규칙한 반응에 혼란스러워 한다. 반대로 성인들은 메이지가 정황이나 사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바보 얼간이라고 비난하며 비웃는다. 그들의 비웃음 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메이지는 이들의 반응에 침묵하며 성인사회를 그저 바라만보는 관찰자가 된다. 성인들은 조용한 메이지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무관심으로 대응하게 된다. 소녀는 침묵을 통해 파편적으로나마 경험을 축적하며 정황을 상황에 맞게 분류하는 능력을 쌓게 된다.

둘째, 지식의 활용 단계이다. 메이지는 이제 축적된 경험을 분류하고 상황에

맞게 그 경험을 꺼내 활용할 수 있게 된. 그러나 아직은 성인들을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녀는 워스 부인과 빌 부인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책을 읽는 재미를 느낀다. 소녀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하고 단편적인 이미지를 나열하던 단계를 지나 인물들을 작품 속 주인공과 동일시하는 진전을 보인다. 또한 이 단계에 접어들어 메이지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체계적이지 않은 가정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 수업을 들으러 가기도 한다. 메이지는 이 단계에서 때론 작품 속 성인들보다 더 성숙한 판단을 내리는 소녀로 성장한다. 선장에게 아이디어를 맡길 수 있다는 확신과 더 이상 자신을 원하지 않는 빌과 아이디어를 떠나보내는 장면에서 그녀의 성숙한 모습을 엿 볼 수 있다. 그러나 때론 문학적 추상력에 치우쳐 현실과 상상을 혼돈하기도 한다.

셋째, 감각적 경험과 지식의 결합 단계이다. 메이지의 의식의 성장은 프랑스에서 정점에 다다르게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 메이지는 작품을 아무런 불평 없이 받아드리는 수동적인 독자였다. 그러나 그녀는 프랑스에서 경험과 지식의 적절한 결합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클라우드 경의 제안에 자신의 제안을 건네며 비판적인 판단도 할 수 있게 된다. 메이지는 클라우드 경과 빌 부인, 워스 부인을 관찰하고 이들을 평가하며 자신과 함께할 상대로 워스 부인을 선택하여 영국행 배에 몸을 싣는다. 요컨대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소설은 메이지가 워스 부인의 말에 ‘오, 알아요’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워스 부인은 메이지가 무엇을 아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작가도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다. 확실한 것은 워스 부인과 메이지가 깨달은 대상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검증이 되지 않은 워스 부인과 오버무어 양을 가정교사로 둔 메이지는 기계적인 반복학습으로 배움을 넓혀나간다. 소녀는 체계적이지 않은 학습을 보완하기 위해 글로어 가에 있는 학교도 다녀보지만 자신이 이제까지 하던 공부와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고 실망한다. 클라우드 경은 메이지에게 친구이며 그녀의 가정교사들과는 다른 가르침을 준다. 클라우드 경과 함께 지내는 시간에 나눴던 대화와 그의 손길은 성인과 아이를 수직적인 관계에서 동등한 관계로 만들어주며 이것은 메이지가 작품 속 다른 성인에게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가정교사의 가르침이 암기와 반복을 강조하는 학습이라면 클라우드 경은 실

생활에서의 응용과 판단력을 길러주었다. 클라우드 경은 메이지에게 자유와 평등,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쥐어 주고 마지막까지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주었다.

수많은 경험과 학습은 메이지의 인식의 확장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메이지는 프랑스를 떠나면서도 성인들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작중 서술에서 작가는 성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며 메이지를 둘러싼 성인들도 이에 대해 소녀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메이지의 신체에 대한 신사들의 비유, 워스 부인의 죽은 딸 클라라 마틸다의 교통사고, 빌 부인과 클라우드 경이 문을 걸어 잠그는 행위, 클라우드 경이 영국에 두고 온 지팡이의 의미 등, 작품의 대화와 서술 속에 여러 성적 묘사가 있음을 메이지보다 인식의 범위가 넓은 독자들은 서술의 행간을 읽음으로서 알 수 있다. 메이지의 인식의 확장은 프랑스에서 끝나지 않는다. 소녀는 자신의 정체성과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성인들의 문란한 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헨리 제임스는 메이지의 순수성과 어린 시절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 오히려 소녀의 경험과 인식의 확장과 지식의 습득을 축하한다. 작품은 메이지가 청소년기를 맞은 단계의 판단과 선택으로 끝나지만 메이지의 인식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 학습과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다.

Bibliography

1. Text:

James, Henry. *What Maisie Knew*. London: Vintage Random House, 2008.

2. References:

Andreas, Osborn. *Henry James and the Expanding Horizon: A Study of the Meaning and Basic Themes of James's Fiction*. New York: Greenwood Press, 1969.

Attridge, John. "The Lesson of the Master: Learning and Cognition in *What Maisie Knew*." *Sydney Studies in English* 37(2011): 23-43.

Cannon, Kelly. *Henry James and Masculinity: The Man at the Margin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4.

Gard, Roger. *Henry James: The Critical Heritage*. London: Routledge & K. Paul, 1968.

Graham, Kenneth. *Henry James: A Literary Lif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4.

Green, Katie, "Victorian Governesses: A Look at Education and Professionalization." A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in History, University of Toledo, 2009.

Hadley, Tessa. "What Maisie Knew: Elders and Betters and Henry James". *Oxford Journals*, 46(1997): 215-224.

Harding, Adrian. "Awkward Realism: Objects of Coercion in What Maisie Knew & The Awkward Age." *E-rea* 5.1(2007).

Klein, Marcus. *Terribly at the Mercy of His Mind: Henry James in the*

- 1890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0.
- Krook, Dorothea. *The Ordeal of Consciousness in Henry Jam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2.
- McElderry, Jr., Bruce R. *Henry James*. New York: Twayne Publishers, 1965.
- McWhirter, David Bruce, ed. *Henry James's New York Edition: The Construction of Authorship*.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 Miles, Kathryn. "What Maisie Knew and the Governess Muddles: Cognitive Development in James's Post-dramatic Fiction." *Colby Quarterly* 36.3(2000): 193-208.
- Moore, Kelly A. *The Crosscurrents of Culture in the Dialogic Pairing of Henry James' "What Maisie Knew" with Zitkala-Sa's "American Indian Stories" and of Henry David Thoreau's "Walden" with Susan Fenimore Cooper's "Rural Hour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7.
- Ohi, Kevin Jon Hisao. *Innocence and Rapture: The Erotics of Childbook in Aestheticism*. New York: Cornell University, 2001.
- Özen, Özlem. "Different Realms of Perception in *What Maisie Knew*." *Selçuk Üniversitesi Sosyal Bilimler Enstitüsü Dergisi* 25(2011): 203-207.
- Perosa, Sergio. *Henry James and the Experimental Novel*. Charlottesville: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1978.
- Putt, S. Gorley. *Henry James: A Reader's Guide*.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66.
- Reeve, N. H., ed. *Henry James: The Shorter Fiction, Reassessment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7.
- Shine, Muriel G. *The Fictional Children of Henry James*.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9.

- Wagenknecht, Edward. *Eve and Henry James: Portraits of Women and Girls in His Fiction*. Oklahoma: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77.
- Wallace, Ronald. *Henry James and the Comic Form*.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5.
- Westover, Jeff. "Handing Over Power in James's *What Maisie Knew*." *Style*, (Jun, 22 1994): 1-12.
- 김 동 수. 「The Act of Knowing in Henry James's Novels of the Nineties」. 문학박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1995.
- 노 은 미. 「헨리 제임스의 작품에 나타나는 의식의 문제와 작가의 이중성」. 문학박사학위 논문, 한림대학교, 2005.
- 박 용 수. 「『메이지가 안 것』의 아이러니와 기법」. 인문학론 제18권 제1호, 1999.

<Abstract>

Experience and Awareness
in Henry James' *What Maisie Knew*

Jaeyeon Hyun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Jeongmin Byeon*

What Maisie Knew is one of the controversial novels of Henry James' from his Dramatic years (1889-1895) since the novel contains ambiguous narrations 'what Maisie has known' is unclear. The story is about a six-year-old girl named Maisie who is caught between her divorced parents who detest each other. James illustrates Maisie's growing consciousness in three phases. In the first phase, Maisie gathers information from corrupted adult society, makes it her own experience, and categorizes it into meaningful units. Maisie, with her innocent eyes, tries to understand her parents and their lovers based upon her information. Unfortunately, the reactions from the adult were inconsistent and caused Maisie a storm of confusion. In the second phase, Maisie is introduced to literature by her governesses. Reading and listening to storybooks gives Maisie an ability to apply stories i.e. knowledge to her experience but in a clumsy way. In the third phase, experience and knowledge combine successfully for Maisie to evaluate the grownups, making her own decision.

Governesses and their education give a great impact on Maisie's expanding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2.

consciousness. However, rote-learning, mimicry and memorization were all they taught throughout her childhood. Maisie's desire for knowledge is clear in the novel, but even the school located in Glower Street could not fulfill her. On the other hand, Sir Claude, Ida's second husband, is the one who really teaches Maisie a real-life education satisfying her eagerness to learn. His chats and walks with Maisie imply her to decide her own future respecting her as an equal human being. He never oppresses her or treats her as a mean to his success. Governesses call out for 'moral sense' suggesting it is a multiple choice question, but 'moral sense' itself is something that cannot be clearly answered by Maisie. Moral sense has different meaning to Maisie and Mrs. Wix. Maisie chooses to stay with Mrs. Wix not because she is moral, but because she has potential to take care of herself to become a moral adult. While Maisie gets a glimpse of moral sense and other knowledge, she is unable to understand the sexual overtones in adult conversations and actions. The novel ends with Maisie's decision to live with Mrs. Wix, but her journey seeking consciousness and searching for the meaning of sexuality will be continued.

Irony is a useful tool to emphasize depraved adult society by comparing Maisie's limited view of the society described in the narration to the reader's understandings of it. In the narration, James continuously mocks adult's behavior but never stands on Maisie's side. He keeps reticence by lowering his voice. However, this does not signify his indifference to Maisie. James does not feel sorry for the 'death' of Maisie's innocent childhood. He rather celebrates her growth of knowledge and consciousness.